

소비자 울리는 '휴대폰페이백'

〈사후 현금 환급〉

이통사, 보조금 약속해놓고 '오리발'

평균 피해액 40만~50만 원선

상반기에만 민원 216건 접수

#대구에 사는 김모씨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고가에 샀다. 당시 대리점 측은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당장은 보조금을 주지 못하지만 한 달 뒤에 보조금이 상환하는 27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리점 측은 약속한 보조금을 대가로 김씨는 3개월간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이용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보조금 현금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리점은 김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가입 서류가 사라졌다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처럼 이른바 대리점 측의 달콤한 '페이백'(사후 현금 환급) 약속을 받고 최신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사용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권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페이백 지급 약속 불이행' 관련 소비자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총 216건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접수 건수는 지난 2012년 76건, 지난해 9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1건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4배 이상인 400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권슈머리서치는 보고 있다.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계약서 기재 여부를 빌미로 한 말 바꾸기가 98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온 오프라인 대리점 폐업에 따른 피해가 67건(31.0%)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요금제 의무사용기간 등 페이백 지급조건 임의 변경 48건(22.2%), 영업사원의 횡령 3건(1.3%) 등 사례도 있었다.

접수된 제보의 평균 피해액은 40만~50만원 선이다. 피해액에는 돌려받지 못한 단말기 보조금 40만원과 비싼 요금제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페이백 자체가 불법이어서 대리점들이 고의로 폐업하거나 말을 바꾸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제 노력을 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구제를 원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 보니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소송을 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더욱이 가입 즉시 적용받는 법정 보조금과 달리 페이백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이상이 흐른 뒤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 대표는 "통신3사와 관련부처는 현재의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음성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보조금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번칙적 운영을 하는 영업점은 물론 해당 통신사에 최종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페이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휴대폰, 대만 남성 살렸다

술자리 시비 끝 가슴에 총탄... 상의 넣어진 전화기에 박혀



'갤럭시 노트 2'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총탄에 맞은 대만인 남성의 목숨을 살렸다.

29일 대만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올해 38세의 한(韓)모씨 일행은 지난 27일 저녁 대만 북부 신주(新竹)현의 한 식당에서 열자리 취객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측 수(拳)모 남성이 사제 총기를 가져와 한씨의 왼쪽 가슴에 한 발을 발사했다. 한씨는 팔에 관통상을 당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구했다.

대만 경찰은 2~3m 거리에서 왼쪽 가슴을 향해 총기가 발사됐지만, 사제 총기여서 위력이 약했던 데다 한씨 왼쪽 상의에 넣어진 휴대전화가 보호막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사건 증거물로 제시된 휴대전화는 뒤 덮개와 내부 전자 사이에 총알이 박힌 상태였다. 한씨가 보유한 휴대전화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2 제품이라고 현지 언론이 소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함께 넣어진 9장의 지폐도 총격 완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쉰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다.



삼성 '레벨' 해외 돌풍

헤드폰 등 4종 美·英서 호평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공개한 최고급 오디오 기기 레벨(Level) 시리즈가 해외에서 잇달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레벨은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의 성능과 뛰어난 음질을 오디오 기기에서도 이어나가려 개량한 제품이다.

헤드폰 형태의 '레벨 오버', '레벨 온'과 이어폰 형태의 '레벨 인', 스피커 형태의 '레벨 박스' 등 4종을 사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만약 삼성이 좋은 소리와 스타일을 짚을 수 있다면 이 제품을 위한 안드로이드 시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레벨 오버의 소음제거 기능이 뛰어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용자를 완전한 고요함 속으로 데려다 주는 오디오 기기는 아직 없지만 현 단계에서 레벨 오버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버지는 특히 "우리 사무실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비츠와 소니, 애플의 오디오 기기를 레벨로 모두 바꿨다"고 강조했다.

US워라리는 "레벨 제품은 매우 인상적인 소리와 스타일을 통해 소비자들의 오디오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이라고 호평했다.

영국의 오디오영상(AV) 전문 잡지인 AV포럼은 '레벨 오버'를 추천(Recommended) 제품으로 선정하면서 섬세한 소리와 인상적인 저음, 매력적인 디자인, 우수한 블루투스 소음제거 성능을 이유로 들었다.

독일의 유명 통신전문 잡지 타리프티프(TarifTipp)도 편안한 착용감과 음질, 소음제거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제품에 '매우 우수(Very Good)' 점수를 줬다.

연합뉴스

국가 재난망 700MHz LTE로

철도·해양 등 통합 사용 유리...2017년까지 구축 완료

미래부 공개토론회

정부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이 700M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 공공안전 통신망(PS-LTE) 기술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재난통신망 기술·구축 방식, 주파수 할당 등의 내용을 담은 운영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소방·경찰·군·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해 20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관동승 ETRI 부장은 재난망 기술 방식에 대해 PS-LTE가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권 부장은 "7개 업체에서 받은 기술 정보 제안서 모두가 PS-LTE를 기술 방식으로 채택했다"며 "다양한 요구 사항과 기능항목의 기술 및 표준 분석 결과가 적

연합뉴스

합한 것으로 나왔고, 현장 분석으로 기능항목의 구현 가능성 또한 확인했다"고 PS-LTE 방식이 적합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PS-LTE는 상용 이동통신 기술과 재난안전통신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쉬우며 여러 국가 공공기관이 하나의 망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다"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각 역무(소방, 경찰) 별로 독립 사용하다가 비상시에는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용 기술이므로 망 구성 비용도 절감되고 외국에서도 채택하고 있으니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유리하다"며 "특정 기업의 독점적 솔루션이 아니고 다수의 제조사가 관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기술이 국내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통신망의 주파수 대역은 700MHz가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 연구원은 "700MHz 대역은 지하구간과 건물 내 등 음영지역에서 통화권 확보가 높고 해상안전 서비스와 고속열차 제어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며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 망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주 추천앱

최근 관심사를 위주로 콘텐츠를 선별해 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뉴스나 각종 멀티미디어를 제공하는 앱에서도 개인의 기호나 관심 분야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오늘은 카테고리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큐레이션' 앱을 소개한다.



◆Flipboard / 제작:Flipboard/안드로이드, 아이폰
흥미있는 주제에 대한 뉴스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앱이다. 최초 설치 후 여러 가지의 키워드 중 자신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한꺼번에 보여준다.



◆StumbleUpon/제작:StumbleUpon Inc/안드로이드, 아이폰
페이스북보다 많은 트래픽량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 스템블어폰은 관심 있는 콘텐츠에 대한 사진, 비디오, 오라기서, 글 등을 랜덤형태로 보여주는 앱이다.



◆뉴스통/제작:tomato corporation/안드로이드, 아이폰
주제별 키워드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에 따라 제공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앱이다. 22개의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를 제공 '하고 있다. 광고가 없으며 빠른 작동 속도가 장점이다.

DESIGN ZOOOS
제공:디자인주소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등촌 동구 충장로1가 4번지 사브사브전문점 대표 김복현 ☎062)227-7734	김용만국수집 동구 금남로1가 19 (YMCA1층) 맛국수,콩국수 김용만국수전문옛날국수 대표 정인순 ☎062)236-3533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062)224-7687, 010-2611-7687	토산철학원 두암동 837-19 두암에덴병원일정로옆 이름, 감정,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진로상담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두걸음직업소개소 북구 두암동 824-2번지청사거리부근 근로자 수시모집 (현장근로자, 여성근로자) 대표 조창욱 ☎062)263-3862	광남기업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입구 사시, 유리 조립식판넬 대표 이경규 ☎062)263-0036
TV스토리 신안동 481-38번지 소형에서대형까지최고의품질 검품없는가격특가판매50%세일 1년무상A/S ☎010)5540-4568	호선갤러리 동구 예술길 10번지 미술품전시및대관 대표 부영진 ☎010)5680-1188	독임이아구짬 동구 금남로3가 13-4 (제일은행뒷골목) 아구짬, 백반, 낙지백숙 청국장, 전통월빙식품 대표 홍안순 ☎062)233-1919	우먼로드 중흥3동 286-36번지 (동부시정입구중흥3동사무소아래) 혼수전문, 이발, 커트, 전문매장 ☎062)524-8737	고전방 동구 공동 34-4번지(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충장동사무소뒷길 백반, 생태탕, 대구탕, 아구탕 낙지볶음, 각종생선조림 대표 이복례 ☎062)224-1541
커피힐릭 동구 충장로 3가 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볶아신선한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규방 동구 충장로1가4번지 (지하) 돈가스,모듬가스 생태탕,순두부 대표 임현숙 ☎062)227-3716	우리밀빵 동구 금남지하상가 E동51호 (분수대옆터부근) 공정무역, 유기농커피, 사회적기업 대표 박연옥 ☎062)222-1151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강항(울금)국밥 동구 공동 34-11번지 ☎062)233-8778~9	T&H양복점 동구 불로동121번지 (평화식당옆) 맞춤정장맞춤셔츠 ☎062)233-0506
미정 동구 금남로 2가 (구)동구청뒤 (옛날구미향) 계절생선회,일식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낙지한마당 동구 대의동 69-3 (동부경찰서앞)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 산낙지 ☎062)225-117				